

**‘G20 서울정상회의’ 관련
특별 프로그램 방영을 위한
해외 사례 조사·취재**

2010. 11.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이정미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중 하나인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외 ODA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외 사례, 전문가 인터뷰를 KDI의 기존 연구 성과물을 바탕으로 공중파 방송(KBS)과 공동조사·취재하여 다큐멘터리 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함.

2. 출장 기간:

- 2010년 9월 27일(월)~10월 6일(수) / 9박 10일

3. 출장 장소

-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나보이·사마르칸트, 프랑스 파리

4. 출장자

소 속	성 명	직 위	출장기간
KDI	이 정 미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9. 27 ~ 10. 6

소 속	성 명	직 위	출장기간
KBS	정 창 훈	부장(취재기자)	9. 27 ~ 10. 6
KBS	신 기 호	차장(촬영기자)	9. 27 ~ 10. 6

5. 출장 일정

일차	월일	시행지역	교통편	현지시각	훈 련 내 용
1	9. 27(월)	인천 ~타쉬켄트	항공기 (KE953) 캡	13:15 ~1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출발 ◦ 타쉬켄트 도착 ◦ 숙소 이동
2	9. 28(화)	타쉬켄트	렌트카 이용	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쉬켄트 현지 스케치 ◦ 투린대학교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업 참여 자동차 부품전시회 취재 및 담당자 인터뷰 ◦ 우즈베키스탄 정부 방문·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ulyaganov 경제부총리 - Ganiev 재무부장관 - Mursaliyev 외국인투자청장
3	9. 29(수)	타쉬켄트 ~나보이 ~사마르칸트	현지 항공기	07:10~08:10 캡으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보이 경제특구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공장 취재 및 공장 대표자 인터뷰 ◦ 대한항공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규원 우즈베키스탄사업단장 인터뷰 - 대한항공 물류사업 현장 취재
4	9. 30(목)	사마르칸트 ~타쉬켄트	현지 항공기	19:00~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마르칸트 현지 스케치 ◦ 사마르칸트 시장 인터뷰 ◦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대완 대사, 박병환 공사 인터뷰
5	10. 1(금)	타쉬켄트 ~파리	항공기 (HY251)	16:10 ~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대완 대사 인터뷰(보충) ◦ 파리로 이동
6~7	10. 2(토) ~3(일)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 스케치
8	10. 4(월)	파리		10:00~12:00 15: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DAC 방문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로모이 개발협력국장 - 에크하르트 도이처 개발협력의장 ◦ FDA(프랑스 개발청) 방문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rge Tomasi 글로벌경제&개발협력국장
9~10	10. 5(화) ~6(수)	파리~ 인천	항공기 (KE902)	21:00 ~1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한국대표부 방문 ◦ 서울로 이동

II. 주요 내용

- GM CIS-KOREA Autoparts Plaza, Uzbekistan 취재
 - 일시 : 2010. 9. 28(화)
 - 면담 및 설명자 : 슈흐랏 유수포프 GM 우즈베키스탄 대표이사

질문 : 오늘 행사의 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 우선 관계자와 GM 대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실행하는 가치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국 측과의 자동차 사업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GM대우와 협력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 가능한 현지 자동차회사가 증가할 것입니다. 오늘날 20만대 가량의 많은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산업용 자동차가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92년도에 한국 GM대우와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고, 회사의 기술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기를 바랄 뿐입니다.

질문 : 나보이특구와 연계할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 : 나보이 자유 경제는 자동차 회사의 생산에 관한 3단계 사업 설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산과 관련된 첫 번째 공장을 이미 8월 말에 한국 측 회사와 공동으로 개설 하였으며, 이 공장에서는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클라스코로프와 카자티라던가 다른 자동차 회사의 차를 생산하는 두 번째 공장이 바로 며칠 전에 개설되었습니다. 수도에 개설 중인 다른 공장은 한국 측 회사 <Erae>, <코리아 델파이>의 도움으로 에어컨, 발전기 등을 생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장이 금년 12월 25일에 생산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금년 안에 이와 같은 사업 형식의 테두리 안에서 4개의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부분 한국 측과 파트너로 진행될 것입니다. 나보이의 경제적인 측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이텍 기술이라든가 자동차 산업과 같은 것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3개의 공장을 개설하였고, 내년에는 4개를 더 개설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장들이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키고, 신기술을 습득하며 미래의 안정된 발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질문 : 나보이 특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 나보이 자유경제 개설에 있어, 우리는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살펴봅니다.

특히 공급이 용이한 나라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라던가, 유럽 지역과의 연결입니다. 두 번째는 세관을 고려합니다.

-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방문
- 일시 : 2010. 9. 28(화)
- 면담 및 설명자 : Tulyaganov 경제부총리

질문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협력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은 전략적 파트너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우리는 친선관계를 맺어 왔으며, 한국은 매우 활발히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적 사업을 늘려가기 시작하였으며,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한국 측 회사와 우즈베키스탄과의 20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입니다. 나보이 자유경제는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을 기반으로 이러한 공업지역을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산업 발전의 경험은 우즈베키스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 나보이 자유 공업 지역의 개설이 실현되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의 경험을 얻어야 합니다.

질문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협력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답변 : 한국 기술 발전과 우리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천연자원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의 목적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풍부한 자원을 이용한 산업의 발전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진행하였고, 오늘날 우리는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성장은 7-9%를 이루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경제성장은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자동차 제조 산업, 항공 산업, 석유화학, 가스 화학 등 수많은 새로운 회사들의 창설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생산 구조를 살펴본다면, 수출은 70%였다면, 지금은 75%로 증가하였다. 외국 공업의 정착을 실현하면서 대통령께서 나보이 자유 공업 지역 개설을 결정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매우 알맞은 지역이며, 세금, 관세, 비자 문제에 있어 외국인을 위한 최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관해 이야기 하자면, 물론 우리는 한국 측 회사의 경험을 취합니다. 이곳에서 열린 한국 회사의 신기술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바를 시사합니다.

질문 : 나보이 특구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 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 자유 공업 지역은 현대의 신기술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한국의 프리젠테이션 수행이 진행되었습니다. <나보이> 자유공업 지역에서는 총 3000명 이상의 비즈니스 대표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오늘날 <나보이> 자유공업 지역에는 이미 25개의 회사가

설립되었고, 그 중에서 이미 5개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출하되는 이용을 기대해 볼 것입니다. 또 7개의 회사 중 5개가 한국 측에서 설립된 회사들은, 전력공급, 발전기, 자동차 부품, LCD 모니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보이> 자유공업 지역을 개설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에서 설립된 자유 공업 지역을 <나보이>에도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매우 신중을 기했습니다. <나보이> 자유공업 지역을 개설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경제지역에 한국 정부의 경제 발전을 도입하여 경제 지역의 전체 발달 단계를 고려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서는 가장 최신 기술이 선보여지고 있으며, 고도의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과 금액을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은, 전자, 전기제품, 자동차 부품 등이 종합적으로 사업을 개설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고도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제작하거나 자동차 제조 등에 필요한 기술을 다루는 것이다.

질문 : 나보이 특구의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변 : 우리가 <나보이>를 위해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회사는 가장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회사는 <나보이>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기술의 다양한 응용을 찾으실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나보이> 자유공업 지역을 개설하기 위한 한국의 경험을 신중히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한국과 매우 능동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점검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분들과의 세미나를 통해 얻는 정보라던가, 컨퍼런스에서는 <나보이>의 발전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국의 지식이나 경험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보이>를 올바르게 실행하기 위해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 측 회사의 사업 심리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 우리가 그들과 일을 함에 있어, 우리는 그들과 한 언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제안이 한국 회사에 지탱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나보이>에는 15개 정도의 한국 회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직 크지 않은 수치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독일과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독일 회사와만 종합적으로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한국 회사는 15개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대기업이 한 곳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을 이끌어 가는 회사가 <나보이>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국의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들이 주된 역할을 수행해서, 다른 기업들도 <나보이>에 참여하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규모와 상관없이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이든 모두를 위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 나보이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 <나보이> 자유경제 구역은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 매우 적합한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우즈베키스탄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유럽 대륙에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변에는 5개의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브라질은 3000km에 위치해 있고, 10개 국가의 수도에 위치하며, 12개 주변 국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유럽이나 근접한 아시아 국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회사에게는 <나보이>의 이러한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한 조건을 갖는다고 여겨집니다. 주변 국가의 시장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상품의 자유경제 구역에서 대부분의 상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한국 회사도 역시 거의 모든 지역의 상품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자체가 바로 충분한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한국 회사든 간에 이곳에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나보이>를 설립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의 하모프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업, 대로, 항공 등입니다. 현재 한국 항공이 성공적으로 운항중입니다. <나보이> 공항에는 이미 세계의 30개 정도의 도시를 운항 중에 있습니다. 즉 <나보이>를 통해, 매우 중요한 운송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철도 운송, 트럭 운송, 자동차 도로 등.다음으로 이 계획안은 우즈베키스탄의 인재 양성에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거의 대부분의 시민은 100% 중상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0명 이상의 특수 콜리지나 아카데미와 같은 기관에서 인재를 양성 중에 있으며, 거의 모든 현대 기술을 접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대학에서는 중요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인재와 관련해서 한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문제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실을 평가한다면, 전기, 가스, 노동력 등. 당연히 운송과 관련된 사항 등 모두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한국의 모든 기업이 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 나보이 특구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답변 : 2009년도부터 우리는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SP 프로그램 안에서 한국 측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 경제 지역 <나보이>를 세우고, 이곳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20국 정도가 자유 경제 지역 <나보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한국에서 8월에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학자, 교수, 한국에 있는 다른 외국 기업 등에게 계획안과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측 대표위원단이 다양한 도시의 지역에 참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국에 그러한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얻었고,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에 관한 사항과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관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해를 시점으로 하여 우리는 세미나를 반복 개최하였으며, 이미 타슈켄트에도 모든 국가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 방안을 결정하거나 추천을 받았습니다.

<나보이>를 개설하기 위한 기관을 위하여 우리는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학습하였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과 자유 경제 지역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의 경험 등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산업 경제 파트너로 여겨지며, 우리 측 대표위원단이 참여한 세미나를 통해 향후 사업을 위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 : <나보이>를 위한 KSP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개선하고 싶으십니까?

답변 : 오늘 여러분이 보셨듯이, 시작 단계에 필요한 구조나 조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회사의 많은 산업과 지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에 필요한 모든 전기, 가스, 내부 외부 도로, 세관 등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1개의 한국 회사를 포함한 6개의 회사가 생산을 시작했으며, 연말에 7개를 더 개설할 계획입니다.

-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방문
 - 일시 : 2010. 9. 28(화)
 - 면담 및 설명자 : Ganiev 재무부장관

질문 : 나보이 특구에서 대한항공의 역할은 무엇이며, 계획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 한국항공과 우리 항공이 협상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매우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허브라고 칭하는데 한국항공의 도움으로 이룬 것입니다. 한국항공은 경험과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한국의 주요 공항인 인천으로 여러 번 우리 측 전문가를 초청하였고,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로 인해 유럽과의 레이스 조절이 가능하며, 한국과의 레이스, 아시아의 여러 다른 도시들 중 뭘바이나 델리 등. 또 새로운 운행노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항공이 자유 경제 지역 <나보이>와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 경제 지역 <나보이>와 1km 반경에 위치해 있는 주상 복합 건물이 건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상 복합 건물을 시작으로 하여 자유 경제 지역의 발전에 있어 한 발 내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항공과 협력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질문 : 한국에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답변 : 한국의 발전을 통해 어떠한 경험적 지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특히 한국의 산업 발전 대해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천연 자원을 영유하지 않고, 석유나 가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단기간에 걸쳐 공업을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전자 등입니다. 우리는 자유경제 지역 <나보이>의 발전에 해당하는 한국의 경험뿐만 아니라, 산업의 여러 방향이나 우리에게 맞는 공업과 우리가 주위 국가나,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상품들을 다루는 부분에 관련된 것, 우리의 인재를 통한 천연자원의 활용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한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경험을 전수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노동 인재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외국의 전화를 받아들여야 하고, 특히 한국. KSP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방향을 이루어야 합니다.

질문 : 한국의 모델에서 구체적인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답변 : 물론 많은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만의 발전 길을 가면서, 외국의 경험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선택했습니다. <나보이> 자유구역이 예

를 들어 한국의 유사한 지역을 그대로 모방했거나, 모방해야만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자유경제 구역의 경험은 <나보이> 구역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외국 브랜드 기업이 사업을 위해, 아니면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나보이> 자유경제 구역에 들어와서 우즈베키스탄과 더불어 주변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계획안과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유효한 신용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위한 신용, 이 방향으로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콜리지의 발전 등 계획안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며, 이미 <나보이> 지역과 관련된 한 계획안의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질문 : 경제 개발에 있어서, 이 나라가 생각하는 개인기업들의 중요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 : 첫째로 우리는 한국의 경우에 있어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의 발전 환경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개인자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개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더불어 우리는 한국 회사의 개인 사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우즈베키스탄 사업단 취재

○ 일시 : 2010. 9. 29(수)

○ 면담 및 설명자 : 강규원 대한항공 우즈베키스탄 사업단장

질문 : 나보이 공항 여기에 대해서 이 공항의 중요도라 그럴까? 그 이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답변 : 나보이 공항 중요성을 이야기 하려면 일단 그 우즈베크하고 나보이의 지리적인 장점을 갖다가 먼저 말씀 드리는 게 나올 거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건 예전에 그 실크로드에 동양과 서양을 잇는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서양의 그 물류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중에서 나보이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항공하고 육상하고 물류 시설을 잘 조성을 하면 동양과 서양을 잇는, 그런 아마 물류의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지점이 나보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 앞으로의 그랜드 플랜은 무엇입니까?

답변 : 저희가 여기 위탁 경영한지가 한 1년 반 정도 되어가는데요. 처음에 여기 화물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기가 한국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점보가 편도 단위로 지금 12회가 지금 나보이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 항공사에다 임대해준 그 에어버스 화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바이, 방콕, 델리, 그리고 프랑크푸르트해서 편도 개념으로 22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목적지를 다변화시킬 겁니다. 이스탄불이라든지, 두바이, 알마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큰 점보가 한국서부터 유럽까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에어버스 화물기가 나보이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선들이 시너지를 만들고 나보이가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질문 : 나보이가 왜 중요합니까?

답변 : 우즈베크이라는 데가 랜더러컨트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육지로 완전히 막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 사회 경제 개발 구역이라는 데가 성공을 하려면 그 어떤 거의 그 한국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데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지금 여기 그 나보이 공항이 대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나보이 공항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움직여질텐

데, 나보이 공항을 중심으로 한 6시간 정도면 동남아의 방콕 정도, 그 다음에 유럽이 동구라과 안쪽은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나보이가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데 나보이가 아마 큰 역할을 하게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나보이 공항이 없으면 나보이특구가 성공 못하는 겁니까?

답변 : 경제 특구 자체가 뭐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죠. 물류 자체가 없으면, 물류라는 게 옛날에는 그 창고를 소비자 있는 데에 다가 다 그 제품의 창고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소비자한테 제품을 갖다가 배달을 했는데 지금은 생산 기지에서 제품하고 그 창고 역할을 다 하면서 소비자한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그 전달을 하는, 물류가 지금은 잘 이루어야지만 경제 개발 구역도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나보이 경제 특구에서 공항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변 : 나보이 경제 특구 자체로써는 지금 나보이 공항이 없다 그러면 경제 특구 자체로써 생산되는 물량이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한국까지 가려면 한 달 걸리고 그러는 게 나보이 공항이 있음으로 해서 6시간에서 8시간 내에 달리 버리가 가능한 기능을 나보이 공항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 대한항공이 투자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변 : 솔직히 말씀 드리면 처음에는 우즈벡 정부에서 나보이에 자유경제 개발 구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물류 기능이 안되어 있는 거죠. 대한항공이 몇 년 동안 세계 항공 화물 운송면에서 1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이 나라에서 높이 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우즈벡 정부에서 파트너로 선정을 하고 대한항공 회장님하고 면담이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대한항공 회장이 우즈벡의 미래, 그 다음에 우즈벡 높은 분의 그 의지, 그걸 보고 우즈벡의 장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대한항공이 뭘 어떻게 인수했습니까?

답변 : 예를 들면 화물 터미널은 인천에 있는 대한항공 화물 터미널의 모든 노하우가 여기 그대로 갖다 스며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럭과 화물 터미널하고 연결 부분, 냉동·냉장 창고 워크 스테이션 문제, 배치 등 우리가 화물 사업을 하면서 가장 그 효율성이 있던 부분을 여기에 인수해 화물 터미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질문 : 이 시설들이 대한항공이 과거에 가졌던 몇십년간의 노하우가 집약된 것인가

요?

답변 : 40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여기 다 녹아들어 있다고 그렇게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 화물 터미널은 우리 인천에 있는 그 대한항공 화물 터미널의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저희가 화물 사업을 40년 하면서 최선의 작품이 인천 화물 터미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인천 화물 터미널을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가 옮겨 갖고서는 그 만들어냈다고 그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질문 : 나보이공항은 화물운송 중 특히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습니까?

답변 : 나보이 특구도 IT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산업, 전기전자 산업 등 부가가치가 있어 항공 화물화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화물들은 항공 화물 수요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CD 모니터 같은 게 이쪽에서 생산이 된다 그래도 그거는 다 지금도 뭐 항공 화물로 수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된 물량도 거의 그 고부가가치 상품이기에 때문에 항공 화물로 수송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공 화물로 수송이 안되는 대형 물량들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맨 처음에 보셨듯이 이 공항이 이 화물 터미널에는 지금 철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모든 물량은 전 세계로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갖춘 공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질문 : 나보이 공항은 세계적으로 어떤 특색이 있습니까?

답변 : 나보이 공항 특히 화물 터미널은 그 멀티 모델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항공하고 트럭, 항공하고 철도의 연계 수송이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화물 터미널입니다. 전 세계 어디 가보셔도 철도까지 들어와 있는 항공 화물 터미널은 아마 찾기가 힘들겁니다.

□ 나보이 경제특구 방문

○ 일시 : 2010. 9. 29(수)

○ 면담 및 설명자

- 이레 케이블 공장 스케치
- 이레 케이블 웨르조드 우마로프 사장 인터뷰
- JV Agrofresh사 스케치
- 알리조노프 박찌요르 사장 인터뷰

질문 : 왜 나보이 특구에서 사업을 하십니까?

답변 : 여기에서 투자를 하면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제일 목적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제, 수입세 혜택이 다 있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답변 : 여기에는 세 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제 혜택, 둘째는 수입 혜택, 셋째는 외환 혜택입니다.

질문 : 외환혜택에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 지금 외환 규정을 작성중이고요. 지금 정확히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자유경제 지역의 조건이나 주체가 어떻게 규정될지 알 수 있을 것

질문 : 입주를 해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 일을 하기 위한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외환 조건, 세제 조건, 관세 조건입니다. 3백만 유로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특혜의 혜택 조건이 10년이나 15년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 기간 안에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 일시 : 2010. 9. 30(목), 10. 1(금)

○ 면담 및 설명자 : 전대완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 인터뷰

질문 : 우리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상당히 요새 관계가 급증됐죠? 요즘 경제협력 어떤 상황입니까?

답변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관계를 수립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그런데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만,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타 국가가 여기 우리가 하는 만큼의 그런 경제협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땐 한국하고 우즈베키스탄만 특수한 관계로 경제협력 그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모로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정부로 봐선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고마운 존재고 또 자기들이 앞으로 따라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나보이 비롯해서 많은 프로젝트에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관계가 있습니까?

답변 : 나보이가 두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는 나보이 국제공항을 물류 허브화 한다는 프로젝트하고 또 하나는 나보이 특구, 그러니까 우리국 같으면 공단을 조성하는 겁니다. 나보이 공항 옆에, 그래서 두 개의 프로젝트가 하나 한 세트가 돼 진행되는 것이 나보이 프로젝트고요. 또 우리가 가스 공사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 호남석유가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수륙일 프로젝트입니다. 수륙일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현재 그 규모, 투자규모를 평가해 보니까 약 40억불짜리 그러니까 이 나라 국책사업으로써 초유의 최대의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랄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건 석유공사가 중심이 돼서 루코일 중국 말레이시아 이 4개 국가의 컨소시엄으로 '아랄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는 지금 그런 프로젝트들이고 그 외에는 이제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질문 :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까?

답변 : 아주 활발하게 아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죠.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특히 대기업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전략적으로 그 시기를 조정을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불 적엔 궁극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포스코도 강관 생산 공장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물론 지금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여기에 백색 가전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엔 둘 다 가까운 시일 내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단지 시기조정 문제가 그 기업의 독단적인 판단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가 최근에 많이 들어와서 이 나라 정부의 EDCF사업도 맡아서 지금 하고 있고 전국을 전산화 그리고 인터넷화하는데 KT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 나라 국민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죠. 우리가 받는 이득도 많겠지만 여하튼 KT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대우 인터내셔널은 가불방직을 비롯해서 우리 IMF때 실패가 있었던 부분을 갖다가 맡아서 대우 인터내셔널이 방직·방직 섬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규모를 자꾸 계속 지금 늘어났어요. 지금 연간 한 100만 150만 축 규모의 방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우리 국내에서 총 생산되는 방직규모보다 지금 큰 정도로 그렇게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질문 : 저리로 진행되나요?

답변 : 가장 최저리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죠. EDCF사업으로서 계속 규모도 늘어나고 지금 현재 시행된 것이 그러니까 1억2천만불 규모의 EDCF 자금이 시행됐고 또 앞으로 한 2억불 규모의 EDCF도 우리가 타당한 사업이 개발이 되면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양국 정상 간의 합의가 있습니다. 합의가 있고 또 EDCF를 겸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 있는 것이 전대자금 지원입니다. 현재 나보이 프로젝트만 해도 약 7,500만불의 전대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나보이 특구가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는데 더 필요하다면 그 타당성을 우리가 조사해보고 전대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 나라 정부에 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구의 개발의 속도에 따라 저희들이 EDCF와 전대자금이 많이 이쪽으로 경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나보이 특구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요?

답변 : 나보이 특구는 100% 오로지 우리 정부와 우리 산업연구소와 합작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이 특구를 개발한 구상단계에서부터 우리가 KSP사업으로 KDI,대외경제연구원 양쪽에 저희들이 사업을 맡겨서 개발 구상단계부터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구상단계에서 참여를 하고 그것이 과연 피셔빌리티가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까지 저희들이 해줬고 또 계획을 수립해줘서 그 계획대로 지금 나보이 특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우리가 물론 코이카를 또 활용해서 컨설팅 사업도 해줬고

EDCF도 깔아주고, 서울로 연수도 시켜주고 또 전문가가 파견돼서 함께 또 일을 했고 모든 전 과정.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우리가 참여했고 또 인도하고 있습니다.

질문 : 진전이나 효과가 있다면요?

답변 : 나보이 가보셨겠습니까만, 나보이 공항이 아주 조그만 시골 공항에서 KAL 기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항공 카고기가 주 22차례나 뜰 수 있는 큰 대형 국제 물류 공항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큰 결과물입니다. 아주 조그만 시골 역 같은 공항이 현재 국제공항이 됐다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이 나보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실질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보이 특구는 아직까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큰 대기업 굴지의 기업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진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지만 궁극적으로 또 이것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함으로 해서 성공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낙관을 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 100프로 다 잘 된다 이렇게 보기엔 아직까지 조금 시기상조라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면 물론 특구가 형성 되려면 굴지의 기업들이 좀 정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굴지의 기업이 정착이 됨으로 해서 그 하부구조를 이루는 하청기업들이 좀 따라 많이 들어와야지 특구가 제조 생산력이 갖춰지고 제조 생산력이 갖춰져야지 또 그것을 실어 나르는 물류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또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 서로서로간의 아귀가 맞아 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특구가 생산단계이고 또 소규모의 기업들이 아직까지 제조업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0프로 막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성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기엔 조금 저어되는 면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에 잠재력이 있고 미래 시장의 잠재성이 높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 관찰하시기에 대기업이 선뜻 들어오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답변 : 투자여건이 이 나라에서 투자 여건을 조성해 주는 면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특구를 만들면서 투자여건을 조성해주는 만큼 그 정도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특별한 그런 유인정책이 아직까진 나오지 않고 있단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은 세계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고 또 그 충분한 그런 정책의 그 입안과 선택 선택할 수 있는 그

러한 뭐라고 할까? 경험,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하우 상 우즈베키스탄이 제공하는 특혜, 소위 말하는 특혜라 하는 특구에서 제공하는 특혜라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달콤한 특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도 우리가 만약 대기업이 대규모 공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정도의 조건은 제시하지 않겠냐 할 정도의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으니 저희들 대사관에서도 좀 더 과감하게 좋은 그런 조건을 좀 제시해주면 좋겠다 하고 있죠. 물론 우즈베키스탄이 제시하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꼭 100프로 거기에 연계돼 가지고 결정해야만 되겠냐 하는 건 그건 우리 사기업의 전략적인 미래관이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만 생산해서 우즈베키스탄의 그 소비 시장만 충족시키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에 굳이 발걸음 해서 어렵게 일 하면서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를 놓고 봐야 되고 이 중앙아시아 하고 CIS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아주 잠재력 높은 시장을 연계해서 생각을 하면 여길 배후 제조 단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들어와서 한 10년 정도는 이런 CIS권, 특히 러시아를 겨냥한 소비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제 생각에는 이 중앙아시아 그야말로 외롭게 홀로 떨어진 섬으로만 남아 있을 것이냐, 제가 볼 땐 결코 그렇진 않고 중앙아시아가 지리적으로 연계돼 있는 것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권입니다. 이 지역에 평화가 찾아올 거고 평화가 찾아오면 바로 이 거대한 시장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배후 제조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이란에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거기서 활동하기보다는 당분간 전환기적인 그런 시기에 우즈베키스탄, 여기서 생산 활동을 해서 그쪽으로 소비시장을 잠식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충분한 지리적 여건적시대적 플러스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까지 다 해야지 대기업이 최종 결론을 내리겠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결정 요소들이 성숙되지 않아서 우선 우즈베키스탄에 그런 제공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시각은 큰물에서 볼 적에는 그렇게 그리 큰 결정력을 발휘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고 다른 동남아나 아프리카를 많이 도왔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보이 경제특구에 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우리의 국익이라든지 혹은 세계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답변 :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고요. 우즈베키스탄이 우즈베키스탄의 정부나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여기서 한 일이 그 사람들한테는 삼성전자가 했든 포스코가 했든 아니면 한국 정부가 직접 했든 그 사람들한테는 다 똑같이 대한민국 이라는 그런 존재로 부각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가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충분히 정부차원에서든 안 그러면 공공기관 차원에서든 사기업 차원에서든 제가 볼 때 충분히 여기에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확보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만큼 한 다른 나라 예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순수한 경제목적으로 이윤활동 차원에서 그렇게 했느냐, 그런 경우에는 그 평가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우리가 좀 더 앞에 있는 국가로서 우리 국격 차원에서든 여러 가지 국제적 뭐랄까 그 사이에 받아왔던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로 되돌려 주는데 그 되돌려주는 대상국가의 하나로서 우즈베키스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택했고 그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이만치 많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감히 비교도 안될 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때 그건 단지 경제적인 그런 활동만으로는 평가하기는 아주 곤란하고,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히 뭔가 되돌려준 것이 아닌가. 또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을 계속 되돌려줄 거고 집중적으로 그래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에서 볼 때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생각하는지 평가가 어떨지. 여기 와서 현지에 와서 제가 여러 고위층이라든지 일반 학자들을 만나 보니까 대한민국을 가장 좋은 이웃이상으로 생각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입에서 항상 말하면 한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어떤 뜻이냐 그 사람들은 어떤 뜻을 어떠한 뜻을 함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모든 것을 모든 방면에서 공적 사적 관계에서도 대한민국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한 기대나 이것이 긍정적이고 또 크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미루어 볼 때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상당히 그래도 우리 국격을 높이는 방향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해 오지 않았겠느냐. 좀 더 얕은 생각으로 경제이윤만 추구했다라면 오늘날 같이 이 나라 사람, 이 나라 정부에서 우리에게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긍정적일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나보이 경제특구에 우리가 무언가 하고자 해서 우리가 무언가 주려고 했는데 그게 과연 그런 경험이 나누어졌나요?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나요?

답변 : 우선 효과는 100% 이상 나왔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실질적인 방법을 우리

가 제시하는 거니까요. 그 결과 다 좋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만의 개발경험이 있는 거고 그 개발경험이 한반도에서는 적용이 됐지만 이 중앙아시아에서 적용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좀 다른 이질적인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개발경험이 빈국, 그러니까 자본주의 하에서 좀 이래 덜 좋은 환경 경제 환경 속에서 사는 나라하고 환경은 그 사이 상당히 좋았고 자연적으로는 환경이 아주 좋았죠. 자연적으로 환경이 아주 좋았는데 그 사회적인 체제가 공산 사회주의를 한 나라에 우리의 경험 개발경험이 바로 접목되고 그것이 활용되기에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개발 경험은 국가가 주도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사기업을 특히 제조분야의 사기업을 많이 양성을 해서 그것이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국가의 역할은 적어지면서 사기업의 역할이 더 커지고 증폭되고 거기서 또 시너지 효과와 오늘날 대한민국 이라는 발전상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지난 20년 동안 독립국가로 존재하면서 그 사회주의의 경제논리가 아직까지 팽배하고 또 사기업을 그렇게 키우려는 특히 제조분야의 사기업을 키우려는 그러한 의지가 우리하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조분야의 기업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키우기보다는 조인트벤처 합작이란 형태를 선호하고 합작의 반반으로 외국기업을 끌어당겨서 매니지먼트는 외국 기업에 맡기면서 그렇게 경제를 이끌어 가려는 그런 노력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작기업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데 그 합작 기업의 끝이 결과가 생산성과 연결되고 그 생산성이 경제발전으로 바로 연계돼서 국민들이 무엇을 향유하게 되는 그런 결론으로 방향으로 아직까진 가지 않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업 육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 개발 경험이 100% 우리나라에 접목된다고는 볼 수 없겠어요, 그러한 한계만 학자들이 극복을 하고 좀 더 어프로치를 달리하면 우리 KSP사업은 충분히 좋은 사업이 되겠고 우즈베키스탄은 그 KSP사업에 아주 상징적으로 양호하게 적용된 나라가 표본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OECD DAC 방문

- 일시 : 2010. 10. 4(월)
- 면담 및 설명자 : 존로모이 개발협력국장

질문 : 질문은 한국의 역할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이 새 DAC 회원국으로써 어떠한 역할이 기대되나요?

답변 : 저희는 한국에 대해 DAC 회원국으로써 두 가지 역할을 기대합니다. 하나는 개발협력을 위한 가능한 많은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원조 수준을 서서히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원조가 단지 돈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원조는 또한 상당한 정도의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영역에서 한국 특별한 책임과 함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한국이 수원국으로써의 최근 경험과 공여국으로써 최근 경험을 결합하는 회원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다리를 가로질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DAC에서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떤 면에서 또한 수원국의 대변인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확실히 한국이 대변인이자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조정역(役) 두 가지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상당한 원조 자원을 동원하기를 바랍니다.

질문 : 지난 2, 30년 간 저희는 세계 빈곤자들이 예를 들어 중국, 베트남, 중남미 국가들이 발전 덕분에 지금은 중소득 국가들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분쟁이 심한 국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이것은 원조원칙에 관한 일부 흥미로운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왜냐면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저소득 국가에 생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빈곤의 지형도 변화가 OECD DAC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이것이 OECD DAC 회원국들에게 암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나요?

답변 : 개발도상국들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의 국가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과 그들 국가들 내에 다양한 도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오랫동안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십년간 분쟁국들이나 떠오르는 국가들이나 매우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 문제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상황의 현실에 맞도록 원칙을 조정하는 방안에 관해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여러 개도국들과도 광범위하게 일해 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성장 가능한 국가 건설이 도전의 일부가 있는 곳으로 상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처럼 확실한 비전과 제대로 된 수행 역량을 갖춘 강력한 정부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국가 역량강화에 보다 집중해야 하며 때로는 현장의 실제적인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다른 행위자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국가역량강화에 대한 지체 없는 집중과 함께 실지로 결과를 전달할 현장의 역량을 갖춘 파트너(동맹국)들의 유연한 혼합체가 필요합니다. 물론 또한 일부 이러한 국가들이 대외정책 접근법, 안보 접근법, 개발 접근법이 있기 때문에 클린턴 국무장관이 말한 3D(Diplomacy, Defense, Development)와 보다 면밀히 작업해야 합니다. 다른 측면으로 말씀하신 빈곤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로 많은 저소득 국가들이 성장하여 중소득 국가로 되는 다행스런 사실의 결과로써, 저희는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중소득 국가에서 부담하는 몫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압니다. 분명 이는 정치적으로나 저희가 이용하는 접근법과 수단의 형태에 있어서 이는 새로운 도전들을 제시합니다. 정치적으로 물론 국가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을 때 빈곤은 내부 분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국내)세제(稅制)와 내부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 내부자원재분배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자원재분배, 즉 기관들은 가난한 국가들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 단순해보이긴 하지만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중소득 국가들에 살고 있다면, 세계빈곤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면, 중소득 국가들 또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중소득 국가들에서 재원(Financial Resources)에서 소프트웨어로 점진적인 전환이 있을 것이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소득 국가의 세제 개선, 사회안전망개발, 교육 보건서비스 개발,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양허성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원조시스템의 개발은행 측면을 보면 중소득 국가라면 저소득 국가보다 양허성이 낮은(Less Concessional) 조건이 되는 시스템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 : 3D 접근법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미국의 ODA 접근법을 잘 묘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OECD 기간에 외무장관을 역임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ODA의 한 가지 주요 모델이 Nordic Approach입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이 ODA를 위해 활용하는 접근법에 관해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다양한 ODA 모델들을 대조하고 비교하기에 좋을 거라 봅니다.

답변 : 이들 차이점들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작은 국가와 큰 국가들입니다. 작은 국가들은 정치적 야망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대외정책과 원조 간에 상호영향에 별다른 관심이 없죠. 북유럽국가들을 보게 되면, 시장기반경제성장과 국가의 강력한 재분배성장과 결합하고, 국가가 세제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서 돈을 거두어 시장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

는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한 가지 형태의 사회모형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확실히 이것이 북유럽 국가의 경험으로, 시장의 힘만으로는 분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에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시장의 힘을 공적재분배와 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북유럽국가경험의 핵심입니다. 이는 또한 저희 개발협력이 분배부분에 보다 더 집중하도록 이끈 것입니다. 저희가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재분배의 중요성에 관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질문 : 세계적 규모의 개발원조안건으로, 한국은 11월에 G20 회의를 주최합니다. Growth와 Resilience에 집중하는 개발안건을 도입합니다. 아마 인프라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2011년에 한국은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을 주최합니다. 저희는 합의를 형성하고 싶어 합니다. 합의가 아니라면 OECD DAC이 대표하는 소위 신흥 공여국과 기존 공여국 간의 공동의 이해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공동의 이해로써 무엇을 구축할 수 있고 이러한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는데 한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답변 : G20에 관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G20 안건의 중요한 부분을 개발, 지속가능성과 회복을 기반으로 한 세계경제성장과 세계경제회복(복구)에 집중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 OECD 쪽에서는 한국이 착수하고 해온 일을 매우 지지합니다. 분명 경제성장을 진행시키려면 인프라는 매우 중요합니다. G20이 명심하도록 촉구하는 점은 시설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 세입을 징수하고,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동시에 마련하지 않으면 '흰 코끼리'라는 예전의 뒷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프라가 내부자원재분배와 결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 회의에 관해서는, 원조효과성안건의 역사를 보면, 로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파리로 옮겨갔고 몇몇 개도국들이 가입하도록 초대되었지만 대부분 저희들만의 안건만 다뤘습니다. 그 다음 아크라로 옮겨가서는 파트너십이 훨씬 더 동등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이러한 소위 '순환'을 마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부산에서는 훨씬 더 동등한 기반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 기증자(공여국)'와 '새 기증자'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면 중국이 올해 60주년을 기념하기 때문에 여러 DAC 공여국들보다 개발협력 경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두 가지 전통, 'OECD DAC전통'과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전통'이 부산에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원국들과의 보다 동등한 자격으로 대화하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계가 상호존중입니다. 전통들이 다르고, 그러한 전통들이 특정 원칙을 기반으로 해왔으며, 그들이 다른 교훈들을 배웠다는 것을 인정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함께 앉아 그러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우리가 이루려고 시작한 것, 우리가 이룬 것, 어떠한 도전에 부딪혔는지를 살피고 나서 이에 관해 논의하는 겁니다. 제가 보게 되는 것으로 병행하는 경험들이 많으며, 약간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병행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남남협력이 국권(國權)에 관해 얘기할 때, 저희는 소유권 (Ownership)에 관해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 좀 더 진행하고 어떻게 실행할지 살펴야합니다. 저희가 중국 스터디 그룹의 상황 안에 있을 때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인프라개발경험에 관해 중국과 논의를 했습니다. 중국도 인프라투자 운영과 유지와 관련하여 일부 같은 도전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역량을 강화하는 법과 투자와 역량강화를 결합하는 법에 있어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법에 있어서 많은 이해일치(Communalities)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매우 중요한 차이점들도 있으며 존중되어야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부산 회의를 향해서, 부산 회의에서 처음에 이해일치의 분야에 집중해서, 공동의 접근법을 탐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법을 살피고, 이를 차이의 분야에 대한 존중과 결합하는 겁니다.

질문 : 특히 어떠한 것들을 염두에 두어두시나요?

답변 :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남남협력은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프로젝트 지향적입니다. 저희도 과거에 그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OECD 원조양식은 보다 부문지원, 전반적 예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국정관리체계 (governance, 國政管理體系) 그것을 다루는 법을 개발했습니다. ‘공동의 담론’을 창조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겁니다.

질문 : Governance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민주제도라는 과시적인 요소 (Trappings)가 없다면 반응하고 책임 있는 정부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국정관리체계논쟁에 포함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정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토론이 있을까요?

답변 : 엄격한 의미의 정치통치에서의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이슈의 거버넌스에 관한 담론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 OECD DAC 방문

○ 일시 : 2010. 10. 4(월)

○ 면담 및 설명자 : 에크하르트 도이처 개발협력의장

질문 : 아시다시피 한국은 지난해 11월에 OECD DAC에 가입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한국이 최근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면서 OECD DAC이 기대하는 원조와 개발 세계에서 한국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 한국이 DAC에 가입하고 모든 DAC 회원국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와 개발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한 기대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흥미롭고 특별한 경우입니다. 한국은 수년간 수원국이었습니다. 원조를 제공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모든 노력을 통해 한국은 이제 신흥 공여국입니다. 다시 말해, 원활한 경제, 안정된 정치의 국가이며 원조를 지원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자국 역사에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다시 말해, 선진국으로써 현재 연대를 보여줍니다.

질문 : 한국에는 일부 정치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열(Fragmentation), 특히 한편으로 무상원조와 다른 한편으로 차관이라는 양극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흥 공여국, 8가지 원칙과 실무, 자원동원 등에 있어서 한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조언을 하신다면?

답변 : 이곳 OECD DAC에서 저희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적용하는 한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자발적으로 본 수단을 적용하는데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EU를 포함한 23개 공여국에서 원조의 품질과 전달이 어떻고,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압니다. 저희는 경험이 많으며 회원국들은 이러한 경험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이곳 DAC에서 학습하는 공동체이며, 한국도 기꺼이 이를 활용할 것이며 DAC 회원국들이 한국정부에게 예를 들어, 말씀하신 분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습니다. 빈국들에게 가장 혜택이 많았던 최고의 금융상품(수단)이 무엇인지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국이 동참하는 학습 과정입니다. 저희가 2년 전 했던 Mid-Term Review와 같은 것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이 보다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리(Review)를 할 겁니다.

질문 : 한국의 ODA 정책과 관련하여 Fragmentation 문제 외에 2년 전 보신 약점들로 무엇이 있나요?

답변 : 한국의 입장에서 Fragmentation은 여러 가지 수단들을 조화시키려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문제이며 제도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지만 여러 기관들

간에 협력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Fragmentation은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Fragmentation은 한국 원조시스템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 수준입니다. 국제적 수준의 Fragmentation은 세계은행은 9백 개의 개발기관들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DAC 국가들 출신으로 교회, 재단 등 사설기관을 포함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동맹국들에 어떤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 40개 이상의 개발기관들이 정부와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기 다른 수단, 평가, 기술 등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는 DAC 국가들과 협력해야하며 한국이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안할 수 있는 최선의 예는 자체 개발협력을 영구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과 같은 국가가 자체개발협력을 영구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 국가가 다른 회원국들에게 최선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질문 : 보다 폭넓은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빈곤의 지형도 변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년간 중국, 베트남, 여러 중남미 국가들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저소득국가 아닌 중소득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원조의 상황을 변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저소득국가에 살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간 또 다른 주요한 발전은 분쟁이 심한 취약 국가들의 급증입니다. 원조가 간단하지 않은 곳으로, 동맹국의 복잡한 경제와 안정을 먼저 확보해야하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개발과 빈곤의 지형도가 OECD DAC가 가령 효과성안건과 개발효과성안건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 마지막에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원조와 개발의 차이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원조는 단지 개발프로세스에 제공되는 일부라는 겁니다. 개발은 훨씬 더 폭넓은 프로세스이며 무역, 금융투자 정책, 환경정책과 같은 다른 소스들이 개발에 지원됩니다. 이들 모두가 개발에 제공되며 원조는 단지 일부입니다. 취약국가와 관련하여, 이는 DAC이 다루는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저희는 취약국가들을 다루며,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이러한 국가들이나 지역들과 최선의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실무그룹인 유명한 Incaf 그룹이 있습니다. 개발협력에서 쉽게 가능한 정상적인 투자는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야하고 또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투자를 할 때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 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취약 상황이 있는 대부분 지역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국제개발공동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안정된 개발프로세스를 진행시키도록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을 지원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빈곤이 중소득 국가들에 있다는 파노라마의 변화와 관련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같은 국가들은 자국 내 빈곤을 다루는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압니다. 중국은 매우 흥미로운 역할이 있습니다. 중국은 한편으로 자국의 빈곤을 다룬 경험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다른 국가정부에 원조와 조언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세계화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 어느 한 국가도 세계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가진 정치적 자산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세계화된 세계에 살고 있으며, 한국은 수출과 경제 이해가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이해들을 개발협력의 형태로 정치적 투자와 결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협력은 원조나 투자였습니다. 정치적 투자는 자선이 아닙니다. 개발협력은 자선이 아니며 투자입니다.

세계화과정에서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개발협력과 같이 분쟁, 빈곤,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며 모든 국가들과 국민들을 위한 것으로 자연손상의 비용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는 개발협력과 환경협력은 병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지 빈곤에 대한 원조나 개발투자(액)를 줄이는 것만 아니라 빈곤이 환경문제에 의존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때에도 훌륭한 본질(Quality)입니다.

질문 : 환경에 관해 빈곤감소 등에 있어서 중소득 국가들의 역할,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저소득 국가들이 아닌 중소득 국가들에 살 때 공여국 쪽의 개발협력에 대한 안전 또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짐작컨대 이들 중 소득 국가들은 현재 기본적 개발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을 알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그들이 지닌 최대 과제는 아닐지 모릅니다. 오히려 중진국함정(Middle Income Trap), 기술협력, 혁신 및 인프라개발 등등이 대두됩니다. 이는 개발협력이 제공되어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듯 보입니다. OECD DAC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답변 : 지식을 교환하는 것, 예를 들어, 기술교환은 여러 신흥 경제국들이 이러한 최신 기술로 환경손상을 피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신흥경제국들과의 협력하는 것은 대단히 합당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생산에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 DAC 국가들에서 논쟁이라는 걸 알지만 이러한 기술협력을 따르고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주조입니다. 이는 세계화된 세상에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이 원조나 사회부문과 같은 아주 작은 부문에만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력에 관한 저희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 : G20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비(非)G8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을 주최하며 여러 개도국들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준비통화를 이용 못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세계금융안전

망과 또한 인프라를 중점으로 한 성장과 회복에 초점을 맞춘 보다 폭넓은 개발안건입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주장은 밀레니엄개발목표가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발전이 고르지 못했으며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장애를 겪었습니다. 성장과 회복을 동시에 유지하지 못하면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MDG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과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G20 핵심 목표와 연계하고, 한국은 개발안건으로 제시해왔고 상호보완적 접근을 하려고 해왔습니다. 많은 원조중심적인 개발 안건들이 국제단체들이 제시합니다. 성장과 회복에 집중하는 이러한 개발안건이 다른 국제단체들이 실행하는 다른 개발 안건들을 어떻게 보완하나요? G20과 OECD DAC와 기타 국제단체들 간에 분업이 어떻게 하면 잘 이뤄질 수 있나요?

답변 : 우선 저는 매우 기쁘며 한국이 개발측면을 안건으로 삼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개도국들이 G20의 타당성에 관해 질문합니다. G7에 관련해서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히 보다 많은 신흥경제국들을 G20의 집단 내에 두는 것이 타당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진행 중이며 다른 186 개국이 G20에 속해있지 않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G20 회의에 관한 개발안건(의제)을 다루는 것은 한국이 세계화과정에서 가난한 국가 발전을 위한 세계적 영향이 어떤 것인지 잊지 않고 있음을 정치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의미입니다. 이는 엄청난 전진이라고 봅니다. 아주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바뀌고 있습니다. 개발안건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있는 어디에 있고, 세계화된 세상에서 변화들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우리의 개발개념과 수단에 다시 적응해야하는지 중점에 관해 2년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원조 그 이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이슈들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점이 무엇인지에 관해 작업해야 합니다. 바로 환경변화입니다. 과거보다 더 환경변화에 집중할 것이며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공공재화(公共財貨)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세계개발시스템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양자간 공여국들뿐만 아니라 다자간 공여국들이 하는 일도 다를 것입니다. 이들은 세계은행, IMF, 지역개발은행과 같은 세계단체들에 지원을 제공하는 같은 정부들입니다. 이들은 공여국 정부들이며 한편 양자간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양자간 노력과 다자간 노력 간에 조화가 없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이것이 두 번째 점으로 저희가 하고자 원하는 두 번째 점입니다. 세 번째 점은 저희 회원국들에서 다른 부처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돈의 주인인 재무장관이 개발문제나 기후변화문제나 빈곤과 개발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

을 극복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관해 고민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몇 가지 예들로, 저희가 변화하는 도중이며 개발협력에 관한 전통적인 이해가 저희들 배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상은 질문하신 것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 : G20과 국제단체 간에 가능한 분업입니다.

답변 : G20은 행정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의 결과를 통해 회원국들이 결론을 채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은 다자간 기관의 개혁과 관련하여 정책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논의되는 것이며 IMF는 최근에 회원국들이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개혁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보다 많은 개혁이란 변화된 경제를 전 세계에 반영하여 IMF나 세계은행에서 부족한 투표권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G20이 개혁을 권고하면 단일 회원국들이 이를 따르라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는 단계적인 것이며 매우 더디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국가들이 G20의 결론이 무엇인지에 관해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를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잘 할 것이라고 말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투표로써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G20은 권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권고를 회원국들이 실현시켜야 합니다. 회원국들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단지 게임이라고 말하면서 옆으로 제쳐두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 : 미국이 최근 24개 회원집행부 간에 'Nuclear Option'을 작동했습니다. 현재 사정이 이러하여 20개 국가로 내려갔고 IMF 회원국 간에 타협을 내놓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유럽 국가들과 다른 한편으로 신흥 국가들 간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 회원국들이 이러한 민감한 주제에 관해 합의나 이해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 보나요?

답변 : 이는 매우 민감한 주제이며 저는 세계은행 이사회 독일 상임이사로 7년간 근무했기에 상황을 어느 정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막강하지만 Voting Power Structure나 IMF나 세계은행에서 반영되지 않는 경제국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권한과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언제나 지지해 왔습니다. 이는 제가 미국인이거나 다른 국가 출신보다 유럽인으로써 말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저는 유럽인들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는 유럽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이미 변화했으며 신흥 경제국들은 그러한 기관들에서 보다 적절하고 충분한 투표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 : 이 질문은 기존 거버넌스와 신흥 공여국 간에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G20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도 내년 부산에서 주최합니다. 한국의 염원 중 하나가 두 그룹 간에 원조원칙이나 양식에 관한 합의가 아니더라도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내년 11월 사이에 그러한 이해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구축할 수 있는 가능한 이해의 윤곽은 무엇 인가요?

답변 : 한국이 소위 '전통적 공여국'과 '새로운 공여국'의 공동의 이해를 확인하려 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공여국이라고 말한 것은 중국, 브라질, 인도가 공여국이 되기 위한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개발투자법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DAC 공여국들은 개발을 폭넓게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훌륭한 거버넌스, 투명성, 인권, 자유언론을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중요하며 열린사회를 위한 일환입니다. 강력한 의회는 정부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강력한 기관(제도)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DAC 공여국들은 이에 대한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저희 수단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마 너무 많은 정황과 함께 너무 복잡할지 모릅니다. 말씀드렸듯이 동맹국들로 일하는 공여국들이 너무 많을지 모릅니다. 새로운 공여국들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를 하고, 수원국들과 확실한 계약을 맺지만 민주주의나 인권과 같은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새로운 공여국과 전통적 공여국들이 효과성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겁니다. 빈곤 국가에서 주목할 만한(측정할 만한) 진전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이 이뤄져야하는 투자였고 성과를 낳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성과여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성과가 무엇이고, 그러한 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평가, 투자가 돈 낭비가 아니고 잘 투자되는지 알 수 있는 법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한국은 올바른 조치,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문제이며 공동의 경험을 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DAC 공여국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맞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옳게 하는 일과 잘못하는 일을 영구적으로 돌아보면 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질문 : 전통적인 DAC 공여국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새로운 국가들도 개발을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한국은 산업화뿐만 아니라 민주화도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개발협력과 요구에 있어서 효과성을 이루는데 있어서 DAC 공여국과 비(DAC) 공여국 간에 공통점이 있다면, 효과성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왜냐면 효과성에 관해 얘기하려면 먼저 이루고자하는 목표를 규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나 인권과 같은 기본적인 자유가 효과성 논의에 포함되나요? 이는 MDG에 관한 논의와도 연관됩니다. 왜냐면 매우 간단한 지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MDG를 위한 측정 가능한 지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현재까지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기본적인 자유, 인간개발과 관련한 확실한 ...(Basket??)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DAC 공여국들과 비(非) DAC 공여국들이 효과성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개발협력을 위한 일부 목표로써 그러한 개념에 일부 기본적인 자유의 기회도 포함되나요?

답변 : 저희는 이미 DAC 중국 스터디 그룹이 있습니다. 공동의 이해가 무엇인지 숙고하고 평가하려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을 때, 예를 들어, 투명성을 봅시다. 제가 파트너와 함께 일할 때 파트너가 준비가 안 되었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저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서서히 공동의 이해를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동의 이해가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걸 2년 내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역사를 길게 보고, 단계별로 공동의 이해를 숙고하고, 인내심을 갖고, 시간을 갖지만 이는 중요하므 대화는 가지자고 하는 겁니다.

질문 : 미래에 G8이나 G20의 역사적 맥락에서도 원조와 개발협력을 위한 조정단체 (Coordinating Body)가 발전할 것입니다.

답변 : 역사적 맥락은 과거입니다. 미래를 보도록 하죠. 회원자격이 어떤 의미가 있고, OECD의 회원이고 아닌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개발협력과 같은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공동의 이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재 논의 중입니다. 저희는 공개적으로 신흥 공여국 정부들이 저희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동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정기적으로'라면 저희는, 예를 들어, 안건을 상술하지 않고, 초청을 한 다음 신흥 경제국들이 저희에게 안건을 정하도록 말해주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열려있음(Openness)'이 저희 과제 중 하나이고, 저희가 실현시켜야 하는 것이며, 이곳은 OECD 부자들 클럽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저쪽으로 가라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개념을 크게 지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동해야 하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속행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세계 정치 상황에서 일부 주저함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5년, 10년, 15년 후 우리가 더욱더 협력할 모토와 엔진이 무엇이 될지가 공동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브라질, 인도 같은 국가들은 OECD나 OECD DAC의 정식회원국으로써 회비를 낼 필요가 없으면서 한편으로는 준(準)회

원국으로써 OECD와 정기회의를 가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문제로 보시나요?

답변 :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여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 공여국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공통점을 찾고, 세계무대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투자할지, 이러한 투자가 보다 많은 지역의 안정성이나 세계무역으로의 보다 많은 통합을 제공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WTO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국제무역규정과 승자고 패자 누구인지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질문이 있다는 점에 매우 기쁩니다. 또한 이러한 주어진 국제무역구조에서 변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WTO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다른 포럼에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OECD에서처럼, 이것이 우리가 열린 대화와 토론의 플랫폼을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찾고, 행위자가 누구이고 우리가 가진 이익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질문 : 원조 효과성에 관해서, 이전의 공여국들에 있어서 이러한 안전이 이들 국가들이 지역 역량 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은 NGO를 포함한 공여 그룹과 기타 다국적외국기업의 지역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들어와 민간부문개발을 교체합니다. OECD DAC의 대표로써 이러한 비판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답변 : 동맹국들의 그러한 견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원조효과프로세스가 여전히 공여국에서 주도합니다. 10년, 15년 후에는 국가가 보다 많은 소유권을 주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제시해야 합니다. 동맹국들이 다뤄야 할 기관과 국가의 자체 행정조직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공여국 주도 프로세스를 위한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내년 2011년 11월에 고위급 포럼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이러한 프로세스를 동맹국의 경영진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질문 :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죠? 동맹국으로 이루어진 어떤 Coherent Body 설립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동맹국 쪽의 OECD DAC을 위한 유사 단체 창설을 주장하는 건가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답변 :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공여국 측에서는 이해의 충돌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또한 공유국, 수원국, 북, 남 등의 언어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정치적 언어가 세계화를 통한 변화와 관련하여 적절한가를 보면, 더 이상 동, 서, 남, 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화된 세상에서는 우리 언어에 관해서 신중해야 합니다. DAC 측에 있어서 이해의 충돌이 있습니다. 이는 개발효과성에 관한 프로세스를 동맹국들에게 넘기는 것이 정치적으로 보다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여국들은 이러한 원조 효과성 프로세스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되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원해야 합니다. 이는 수년 동안 논의되어 온 것으로 납세자들의 세금과 정부와 의회의 책임과 민주주의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는 원조효과성프로세스가 동맹국의 전적인 책임에 있을 때, 또한 관리의 의미에 있어서, 본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훌륭히 관리되는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입니다. 이는 내년에 한국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원래의 개발은행들을 포함시키자는 제안과 같은 일부 논의할 예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수행 역량이나 의향을 도입하는 겁니다. 또한 DAC 공여국들은 이곳 OECD에서 본 프로세스를 조종하지 않고 더 많은 'Global Overview'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타당성의 문제나 관리의 문제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논의해야 할 유명한 출구전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관찰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하는 일에 비판적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Development Business Industry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Development Business Industry는 언제나 원조나 개발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출구전략을 정의하자면, 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원조의 종식은(To end aid) 국제협력을 끝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 원조시스템이 국제협력으로 변형될 수 있을 때, 원조의 종식이란 빈곤이 없고, 거의 세계 어디에든 비교적 건전한 정책이 있는 이러한 꿈은 아시다시피 오늘날에 측정된 것이죠.

하지만 서로 가까이 생활하는 현 세계에서 국제협력은, 우리는 그러한 협력에 관한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인프라, 교육에 대한 투자할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었을 때에도 말이죠. 또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구증가를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현대화를 통해 개발, 지원, 투자가 필요한 한 가지 기준입니다. 인구성장과 환경순상 등을 줄이는 두 번째, 세 번째 사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질문 : 원조원칙문제의 눈으로 봤을 때 사실 공여국의 납세자들이 자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동맹국에 공여국 신분을 준다고 할 때 공여국 정부가 그들 납세자들에게 책임 있고 해명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진지하게 신뢰할 수 있나요? 따라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동맹국 쪽에서는 소유권보다는 파트너십을 택하는 게 낫지 않나요?

답변 : 수원국/동맹국들이 예전 국가들에서 돈이 어떻게 할당되고 공여국들에서 돈이 어떻게 동원되는지 정치적 상황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이는 정말 복잡한 과정으로 어려운 과정입니다. 정부에서 여기, 저기로 돈을 주겠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수개월, 수년의 협상을 거치는 것으로,

소위 공여국들이 그러한 투자를 하는 것이 자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더욱 설득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국수주의로 회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앞을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자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공여국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높이 수용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는 정치적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적 교육이란 벨기에인, 포르투갈인, 프랑스인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의 상황, 강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의 코리더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질문 : 한국은 올해 최근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하여 OECD DAC에 가입했습니다. OECD DAC이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OECD DAC이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 DAC은 한국의 회원자격을 환영합니다. 올해 2010년에 실효되었습니다. 큰 기대로는 한국이 수십 년 전 개도국으로써의 자신의 경험과 현재 훌륭한 실적의 신흥경제국으로써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DAC 공여국들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질문 : G20 주최국으로써 한국은 성장과 회복에 집중한 개발의제(안건)를 제시합니다. 이는 견실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G20의 핵심 목표와 일치합니다. G20에 개발안건 상정에 대한 OECD DAC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 G20 비(非)회원국을 잊지 마십시오.

질문 : 한국은 올해 11월에 G20뿐만 아니라 내년에 부산에서 고위급 포럼도 주최합니다. 한국은 소위 '새 공여국'과 '전통적 공여국' 간에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길 바랍니다. 부산 제4차 고위급 포럼에 대해 OECD DAC은 어떠한 기대를 하나요?

답변 : 소위 전통적 공여국과 새로운 공여국의 공동의 이익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투자를 하려는 공동의 이해가 서로간의 차이점보다 더 많습니다.

□ AFD(프랑스개발청) 방문

○ 일시 : 2010. 10. 4(월) 15:00~17:00

○ 면담 및 설명자 : AFD 글로벌 경제&개발 협력 국장 Serge Tomasi 인터뷰

질문 : 프랑스는 오랜 기간 아프리카의 원조에 치중해 왔습니다. 아프리카 원조를 비롯한 프랑스의 원조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답변 : 프랑스는 경제협력개발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9년에 126억달러의 원조금을 지원하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원조국이 됐습니다. 이는 프랑스 국민 총생산의 0.87%에 달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원조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남쪽 국가들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 2009년에는 총 원조금의 58%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오늘날에 아프리카는 대륙 전체의 개발이 뒤쳐진 유일한 지역입니다. 아시아와 남미의 경우에는 몇몇 국가들의 고속성장과 함께 균형 잡힌 발전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수십 년 전부터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다릅니다. 아프리카는 빈곤국이 가장 많은 대륙입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발이 가장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프랑스는 원조금의 18%를 아프리카의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보건 위생과 농업 분야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입각한 정책들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AFD는 주로 인가 받은 용자를 기후변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원조의 5대 수혜국 중 하나입니다. 이 국가들은 기후변화 개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FD는 2009년에 기후 변화 대책에 29억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질문 : 오직 아프리카 내 수치인가요?

답변 : 세계적으로요. 인도네시아와 중국, 브라질 등은 기후변화 대책의 두 번째 구매자로 떠오르면서 프랑스측의 의제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프랑스 원조를 다룬 전략적 문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문서는 장기 계획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서들과는 분명 다릅니다. 우리는 현재의 경제성장과 자금조달, 고용창출 그리고 교육과 보건 등의 장기 계획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고자 합니다. 이어 세계적으로 공공 자선활동을 장려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책과 전염병 예방책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질문 : 앞서 아프리카의 긍정적인 요소를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변 : 먼저 긍정적인 요소를 언급하고 국제적인 역할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개발 전문가들은 21세기의 개막을 앞둔 1990년대 말부터 아프리카에 ‘미덕의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 경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5~6퍼센트의 고속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OECD회원국들의 평균 성장률을 웃돕니다. 즉, 앞선 선진국들의 성장 궤도와 유사한 궤적을 그렸습니다. 특히 인구 1인당 수입은 지난 10년 동안 매해 2.5~3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거시 경제는 엄청난 개선을 이룩했습니다. 위반이 감소했고 국제 원조에 힘입어 막대한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특히 빈곤국을 대상으로 한 계획은 빛의 액수를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갈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들은 상당 부분 갈등을 해소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소도시에서는 인구 밀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도시를 겨냥한 투자는 최고의 수익성으로 나타납니다. 경제학적으로 인구 밀도 증가는 투자금의 수익성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상은 장기적인 장점들이고 이는 ‘21세기 계획’에 대해 감탄을 자아내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학비 지원제도는 30년 전에 비해 눈에 띄게 강화됐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학비 지원이 20~25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매우 빠른 성장입니다. 난관을 벗어난 이후에는 아프리카의 발전이 지닌 영향력과 역할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주요 토론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개발 지원만의 특정한 역할을 분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발 지원은 독자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국가들의 정책이 효율적이고 유지 가능해야 합니다. 게다가 국제적인 분위기도 호의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약 10여 년 전부터 주요 직업 종사자들에게 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올해 11월에 한국에서 열릴 제4회 원조효율성 포럼과 연관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2회 포럼을 파리에서 개최하여 원조 효율성 선언문을 적용했습니다. 선언문은 원조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원조국들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혜국은 주어진 원조를 조종하고 주권을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조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수혜국은 복잡한 민간 절차가 아닌 국가적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분리와 협조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조에 대한 외부 간섭을 줄입니다. 지금까지의 프로그램들을 돌이켜보면 원조 효율성 의제는 매번 원조의 관리에 집중됐습니다. 제한적인 관리를 통한 가장 효율적인 원조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 포럼에서는 정확한 결과 측정 및 원조의 효과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조를 원활히 관리하는 것 이외에 긍정적인 결과와 효과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는 훨씬 어렵지만 우리는 제4회 서울포럼 때 이를 논의할 것입니다.

질문 : 특수한 경우인 한국이 개시하는데 있어서 의제와 관련하여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 : G20연구팀이 갖는 두 번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토요일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연구팀은 G20정상회담을 준비합니다. 프랑스는 첫 회의 때 한국이 '개발'을 G20의제로 포함시킨 것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프랑스는 다음 임기 때 한국에서 시작된 작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 조정과 발전을 더욱 심도 깊게 다룰 생각입니다. 이들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질문 : 한국은 신 원조국으로써 글로벌한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신 원조국과 전통적인 원조국 사이에 위치한 프랑스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조언을 한다면?

답변 : 한국은 전통적인 OECD 원조국들과 점점 역할이 커지는 신생 바이어들 간의 의사소통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의 역사와 G20 내에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개발 관련 프로젝트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팀은 최고의 바이어 연합과 국제 원조의 효율적 관리를 담당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서울에서 아프리카를 위한 협력과 삼각 협력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삼각협력에는 북반구의 국가와 개발도상국, 빈곤국이 각각 하나씩 모입니다. 북반구의 국가가 자금 조달을 통해 인력을 동원합니다. 여기서 개발도상국은 중재를 통하여 빈곤국의 이익을 신경 씁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삼각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한국은 OECD회원국들과 신 원조국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역사 그리고 사회조직이 각각 다른 국가들 간의 의사소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들의 의사소통을 돕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아주 적합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질문 : 프랑스는 기후변화나 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계획 중인가요? 원조가 아프리카로만 편향돼 있다는 비판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발 원조에는 여러 수단이 존재합니다. 우선 보조금은 극히 드문 자원이고 특히 경제위기 때는 재정 보강으로 인해 더욱 희소성이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융자 지불이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자원을 덜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최대 빈곤국을 원조하면서 보조금 지급에 치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 프랑스는 국제 보조금의 50퍼센트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빈곤한 14개 국가에 보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내 53개 국가들 중 가장 가난한 14개를 선정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대출이 불가능하고 금융시장에 접근할 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교육과 보건 분야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다른 분야에는 시장의 수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AFD는 프랑스 정부의 지원

을 받아서 저금리로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대책에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는 세계 4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인도네시아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 합니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최다 배출국가의 상황에 개입해야 합니다. 산림 파괴를 예방하는 정책과 절차들을 동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프랑스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이 단순히 공적 개발 원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용자 보조금 이외에 일련의 시장 도구들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이자 용자와 보증 장치, 자본 리스크 조정장치 등이 있습니다. AFD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은행활동에 참여해 이들의 개발을 허가하고 적절한 자본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빈곤국의 여러 기업들은 금융권 접근 및 자금 증가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OECD는 공공발전을 위한 원조보다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조달의 강력한 수단에 무게를 둡니다. 공적 개발 원조와 시장 수단, 해외 직접투자, 민간 원조 등을 포함하여 보다 글로벌하게 개발이란 개념을 접근해야 합니다.

질문 : 현재 개발 효과의 비전에 대한 토론이 열띤게 진행 중입니다. 미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본인의 근본적인 관점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 개인적으로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공공원조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발에는 공적 개발 원조 이외에 다른 요소들도 포함됩니다.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야 하고 공적 개발 원조는 이중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원조의 효율성이 아닌 개발 및 개발 정책의 효율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과 자본 리스크, 보증 장치, 파산 국가를 위한 무이자 용자 등 공공 원조 이외의 일련의 수단들은 모두 발전을 위한 자금조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적인 경제조정과 맞춰서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에 답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의 진화는 개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면 수입에 치중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1차 노동의 가격이 요동을 치면 이는 해당 국가와 생산자, 수입자 등의 급여 균형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은행계에서 규정을 신설하거나 재정적 낙원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면 마찬가지로 피해자인 개발도상국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로 제한된 개발을 글로벌한 거시 경제적 측면으로 끌고 나와야 합니다.

질문 : 프랑스의 국제 원조는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아프리카 원조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 국제 개발 원조가 실패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실패 혹은 성

공 사례의 개별적인 영향을 알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바이어들의 국가 간섭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잠비크의 경우는 21개국 바이어로써 양측 그리고 다국간의 참여를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성공 혹은 실패 사례를 단일 바이어와 연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다국적 기구 또는 2개국 기구의 공동 투자로 진행됩니다.

국제 개발 원조는 1970년대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흰 코끼리’라고 일컫는 대규모의 투자가 원조국의 역량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책정되면서 기능의 마비를 야기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개발 원조는 투자 자금 조달에만 치중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게다가 수혜국들은 기능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투자는 장기간동안 지속가능해야 하고 프로그램 전체를 지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다른 국가들과 함께 아프리카의 사회 분야, 의료비, 노동자 임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 계획상에서는 이것이 장치 비용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향후 20년 동안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장치 비용이 아닌 투자입니다. 이는 미래에 투자하여 후세대가 역량을 펼치게끔 돕습니다. 우리는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체계상 국가의 외교부 장관은 독립 연구팀을 구성하여 모든 협력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대책과 협력 정책 등을 수정합니다.

질문 : 원조의 효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파리 선언문’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원조의 효력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답변 : 우선 우리는 파리 선언문의 내용을 감안한 뒤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프랑스 고유의 방식들을 협력 장치에 설치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소유와 동조, 바이어 조직의 배열을 중심으로 한 협력 절차를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조 프로그램의 분야별 예산을 증감시켰고 국가의 절차를 더 많이 이용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특정 유럽 국가의 비중을 줄이기 위하여 ‘무언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유럽연합 기준에서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프랑스는 해외로 파견단을 보내는 대신에 다른 원조국에게 재정 관리를 맡겨 현지 체류 중인 원조국의 숫자를 줄입니다.

원조의 효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원조 정책 관련 담론은 원조 관리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재정 수단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프랑스는 경제적 수익성이 뛰어난 운송 인프라를 용자금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용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 분야들은 별개의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기부자 두 명이 도로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원조의 효력을 따질 때는 투자 자금 조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무엇인지 물

어야 합니다. 또한 공적 원조 자금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야 하고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부자는 수단의 효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치지 말고 정책의 일관성, 개발 정책과 상업 정책의 유기적 결합 여부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개발 정책과 이주 정책의 연관, 국제적인 재정관계 계획과 개발 정책의 연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개발의 목적과 연관 지었을 때 효율적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적합한 환경 조성 과 민간 투자 개발도 중요합니다. 원조의 효력에 대해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개발 원조 정책 및 수단을 더 과고들어야 합니다. 원조의 효력에 대해 말할 때는 담론의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개발의 진화 및 절차에 더 많은 무게를 둡니다. 이는 OECD 개발위원회가 정의하는 전통적인 원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발의 효력’으로 넘어가면서 협력과 개발의 패러다임 및 비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질문 : 고위급 포럼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번 회담뿐만 아니라 다음 회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세요.

답변 : 첫째로 앞선 세 번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종합 평가가 가능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진전을 가늠하고 선택된 절차가 원조 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 대차대조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자국간의 조직 구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원조의 효력은 현장 적용에 앞서 양자 관리 기구에 의해 도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역(Free Industrial Economic Zone) 조성 프로젝트

가. 개요 및 배경

1) 목 적

- 이중내륙국으로서의 한계 극복과 국가 경제 개발을 위하여 나보이 공항을 중앙 아시아의 허브공항 및 물류거점으로 개발하고 나보이 지역에 첨단 산업단지를 육성
- 물류기지로서의 공항과 경제특구를 상호 시너지 효과로 결합시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추진 일정

<표> 나보이 프로젝트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FIEZ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발효 : 2008. 12<input type="checkbox"/> 행정위원회 구성 : 2009. 1<input type="checkbox"/> 기본계획 수립(Preliminary Development Plan) : 2009. 3. 1<input type="checkbox"/> General Layout 완성 : 2010. 1. 1

출처: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the Establishment of Free Industrail-economic zone in Navoi Region, 2008

3) 나보이 선정 배경

- 나보이는 우라늄, 면화, 화학제품, 전자재 등의 농업, 광산물 등이 전세계 4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
- 나아가 175km 떨어진 곳에 사마르칸트, 110km 떨어진 곳에 부하라, 히바 등 우즈베키스탄 3대 고대 유적도시 및 20개가 넘는 역사유적들이 남아 있어 관광 산업의 전망이 밝음.
- 나보이는 교통요충으로서의 입지조건도 갖추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며, 국제철도가 공

항 옆을 통과

- 나보이 공항은 13만 평 규모로 지리적으로 주변에 산이 없는 드넓은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인천공항(3.7km)을 능가하는 길이 4km, 너비 45m의 활주로는 갖춰져 있어 747 점보기의 이착륙이 가능하고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이라 기후조건도 비행기 이착륙에 적합
- 180억원 규모의 공항화물 터미널 공사를 나보이콤비나트의 자회사인 건설회사가 짓기로 했으며, 유류저장시설 공사도 한창 진행 중
- 2008년 12월에 들어 60실 규모의 현대식 공항호텔이 준공됨.

4) 대한항공의 나보이 공항 위탁 경영

-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은 나보이 공항 현대화를 국가사업으로 지정, 본격적인 지원을 도모할 방침을 천명하면서 공항 운영권을 대한항공에 맡김.
 - 우즈베키스탄이 대한항공에 운영권을 맡긴 이유는 국제선 항공화물 수송에서 대한항공이 최근 4년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항공의 물류와 선진 노하우를 전수 받기 위함.
 - 대한항공이 나보이 공항을 국제공항 겸 물류허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즈베키스탄 항공은 이를 바탕으로 군사비행장으로 활용되던 공항을 국제적인 규모의 공항으로 새로 만드는 방식
- 진행경과, 목표, 개발방안
 - 진행경과
 - 대한항공 화물기 취항 : 2008. 8
 - 공항경영 계약 체결 : 2008. 12
 - 공항 경영 목표
 - 중앙아시아의 허브공항 구축
 -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
 -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항 활성화
 - 개발 방안
 - 최신 시설 및 장비확보
 - 프로세스 개선 및 교육 훈련

- 공항 마케팅 강화
- 공항 부대사업 개발

□ 개발 계획

- 공항 개발기(2009-2013)
 - 목표: 공항인프라 구축(2년)
 - 시설확충 및 장비 확보
 - 신속한 육상연계/통관 시스템
 - 목표: 항공화물 확대 개발(3년)
 - 항공/육상 네트워크 확대
 - 글로벌 물류업체 유치
- 공항 경영합리화(2014~)
 - 목표: 중앙아시아 HUB
 - 생산성 향상, 수익성 확보
 -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진출

나. 나보이 FIEZ의 주요 내용(대통령령 기준)

1) 재정목적 및 대상 업종

□ 세계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교통, 사회 인프라, 제조 등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외국의 현대적인 고성능 시설, 기술, 기술 라인, 모듈, 혁신적 기술의 도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고기술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함.

2) 대상지역 및 적용기간

□ 부지 : 500 ha(약 150만평)

□ 나보이 FIEZ 운영기간은 30년이며, 향후 연장가능

3) 투자유치를 위한 FIEZ내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 FIEZ 행정위원회에 등록된 기업들은 FIEZ 내에서 통관, 세제, 지불화폐, 출입국, 외국인 고용, 허가 등에 있어 완화된 규제와 주요 인센티브를 부여받음.

가) 세제혜택

- 기업들은 아래의 직접투자 규모에 따라 최소 7년 이상 토지세, 재산세, 이윤세, 사회 인프라 개발세, 통합세(소기업), 공화국 도로 펀드 기여금, 공화국 학교 펀드 기여금을 면제받음.

- 3백만-1000만 유로: 7년간 면제

- 1000만 유로-3000만 유로: 10년간 면제. 향후 5년간 이윤세율과 통합세율을 현세율(current rate)의 50% 수준으로 부과(총 15년)

- 3000만 유로 이상: 15년간 면제. 향후 10년간 향후 5년간 이윤세율과 통합세율을 현세율(current rate)의 50% 수준으로 부과(총 25년)

나) 통관

- FIEZ 내에서 '수출'을 위해 생산되는 상품의 제조를 위한 설비, 원자재,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 등 각종 통관비용 면제(통관처리수수료 제외)

- FIEZ 내에서 우즈베키스탄 '국내'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상품의 제조를 위한 설비, 부품, 원자재 수입시에는 관세 등의 적용에 있어 50% 감면(통관처리수수료 제외)

- 단, 면제를 받은 설비, 원자재, 부품의 판매 또는 기부시에는 원래 법령에 의거, 통관비용의 전액을 지불

다) 토지 사용

- FIEZ의 기업들은 일정 구역의 땅을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인은 토지를 재임차하거나, 임차권의 담보제공 등의 권리를 부여받지 않음.

- FIEZ 내의 토지의 판매 및 매각 등은 금지됨.

라) 외환의 사용

- FIEZ 내에 등록된 기업간 계약에 따라 외국통화로 지불 가능
- FIEZ 외 우즈베키스탄 기업들로부터 상품, 용역, 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후 자유롭게 교환가능한 화폐(freely-convertible currency)로 지불 가능
- 재화의 수출과 수입시 편의에 따라 지불 조건과 형식 등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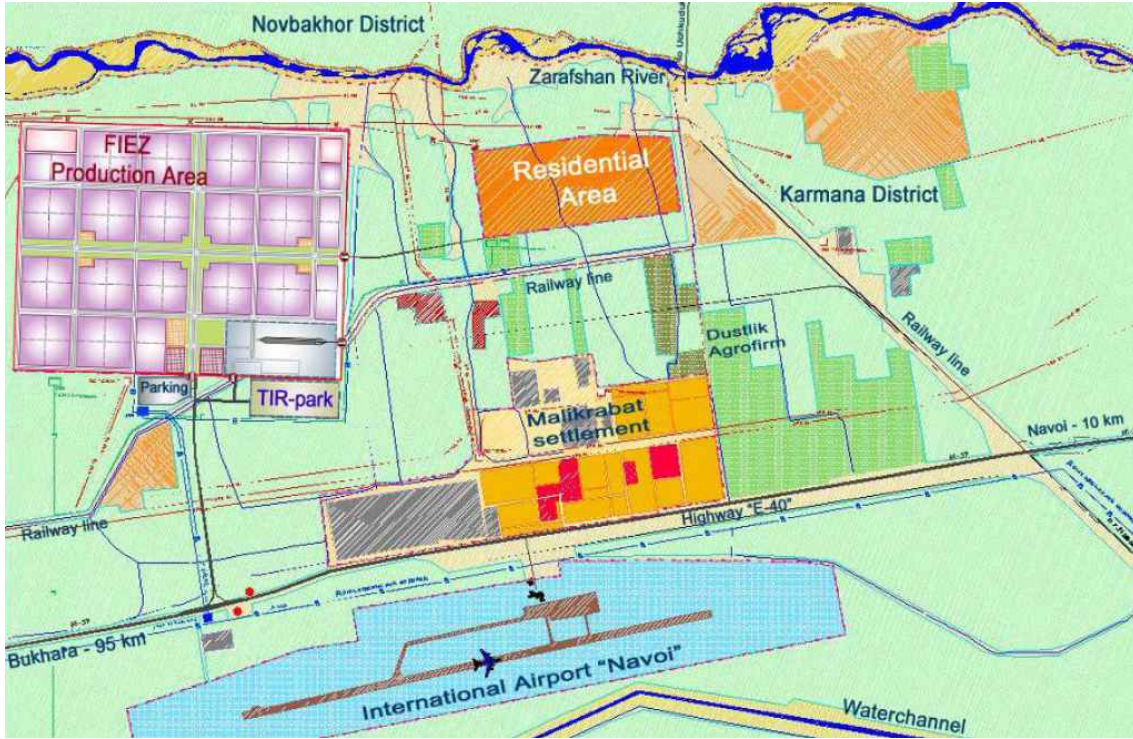
<표> 기존 외국인 투자법과 FIEZ내 인센티브 비교

구분	기존 외국인 투자법	FIEZ
세제 혜택	• 투자금액에 따라 7-25년 혜택	• 투자금액에 따라 3-7년 혜택
통관	• 수출목적시 면제대상을 설비, 원자재, 부품으로 확대	• 법령으로 규정된 일정설비에 한해 관세 등을 면제
외환사용	• FIEZ내 업체간 외환결제 가능 • 우즈베키스탄 내 사업체와 USD, EUR 등으로 결제 가능 • 수출입의 경우, 지급수단 선택가능	• 우즈베키스탄 내 회사간 현지화로만 거래가능 • 수출시 100% 선금, 신용장 개설, 외국상업은행으로부터 지불보증 • 외화 입금시 50% 현지화로 환전의무

4) FIEZ 관리 및 자원조달

- 09. 01. 01까지 관계정부 대표들로 구성되는 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FIEZ 운영 및 규정을 집행토록 함.
- 행정위원회는 내각과 협의하여 국제경쟁입찰을 통한 FIEZ의 위탁경영자를 선정
- FIEZ 토지와 건물 임대료 수입 등, FIEZ 독립회계 예산을 편성
 - 독립회계예산에서 FIEZ의 기능 원활화를 위한 인프라개발 전용펀드(Development Fund of FIEZ devoted to infrastructure development)의 설치
- 경제부, 재무부, 우즈베키스탄 재건 및 개발펀드는 FIEZ의 개발에 대해 승인된 General Plan에 따라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필요시 투자 프로그램의 형식을 통해 지금을 제공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 (FIEZ) & KAL Complex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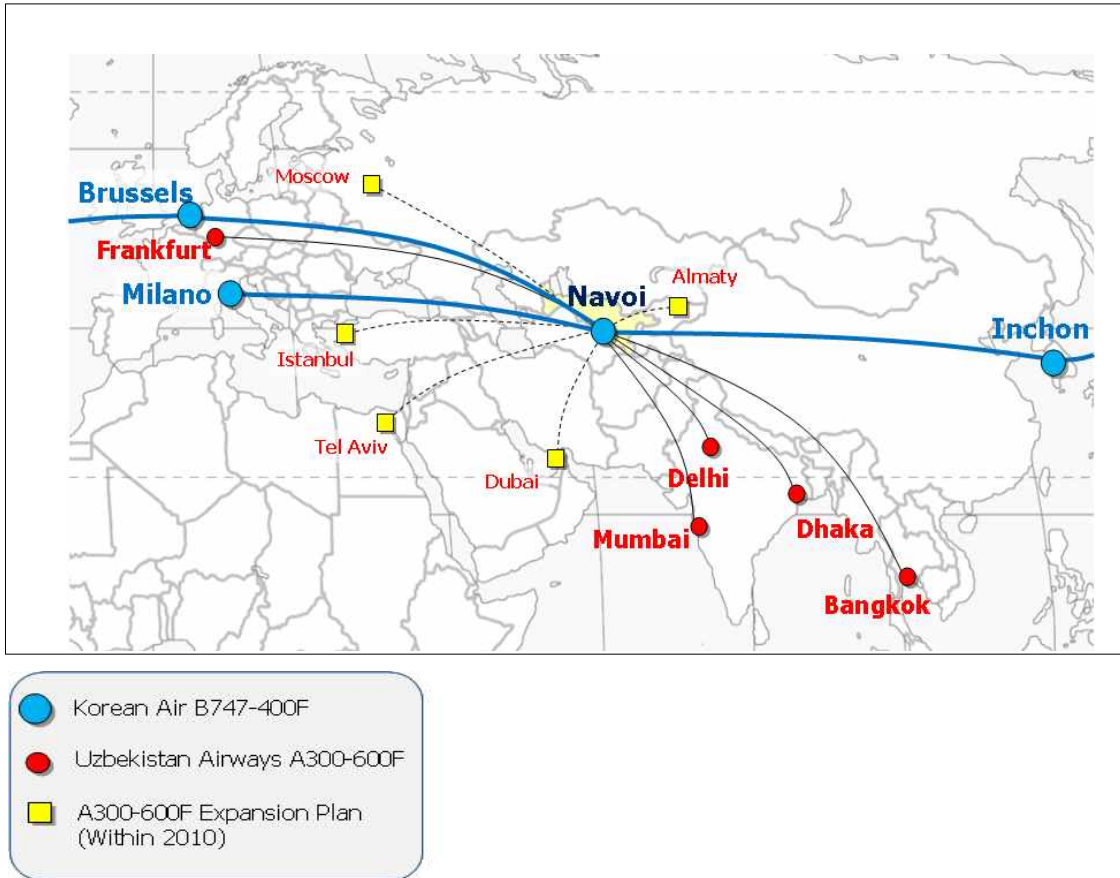
<나보이 및 인천 자유경제지역 비교>

항목	나보이 자유 산업-경제 지역 (Free Industrial-economic zone, FIEZ)	인천 자유경제 지역 (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
관련 법	○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역 설립에 관한 대통령령 (2008.12.2 제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2.12.30 제정 / 2008.3.28 최근 개정)
목적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우호적인 사업 환경 조성 ○ 나보이 지역 개발 ○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첨단 산업단지의 조성	○ 국제 비즈니스 활동 관련 각종 규제 완화 - 외국인 기업의 경영 활동 지원 - 외국인의 생활 여건 개선
기한	○ 30년, 이후 연장 가능	○ 기한 명기 없음.
세제 감면	○ 토지세, 재산세, 소득세, 인프라개발세, 도로 기금, 학교 기금 면제 - 투자금액 3백만~1천만 유로: 7년간 면제 - 투자금액 1천만~3천만 유로: 10년간 면제, 이후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투자금액 3천만 유로 이상: 15년간 면제, 이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 투자 금액 1천만불 (제조업), 5백만불 (물류업) 이상시 각종 세금 감면 - 법인세, 소득세: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취득세, 등록세: 15년간 면제 - 재산세: 10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 교통유발 부담금 면제, 개발사업승인 시 각종 인허가 의제, 각종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감면
관세 감면	○ 수출 생산용 장비, 부품, 원자재의 수입 관세 면제 (통관수수료는 납부) ○ 내수 판매용 부품, 원자재의 수입 관세 50% 감면 (통관수수료는 납부), 180일간 보세 ○ 면세 수입한 장비, 부품, 원자재의 매매 및 증여 시 관세 부과	○ 위 세제 혜택 조건을 만족하는 자본재의 수입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3년간 면제
세법 개정에 대한 보호	○ FIEZ에 등록된 사업체에게 불리하게 세제가 개정되어도 적용되지 아니함 (단, 소비세는 제외)	

항목	나보이 자유 산업-경제 지역 (Free Industrial-economic zone, FIEZ)	인천 자유경제 지역 (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
세제 감면 대상	○ FIEZ에 등록된 사업체	○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외환 규제 완화	○ FIEZ내 업체간에는 합의한 외환으로 결제 가능 ○ FIEZ에 등록된 사업체는 우즈벡내 사업체에게 USD, EUR 등으로 결제 가능	○ 1만불 이내에서는 직접 지급 가능
기타 혜택	○ 비거주 외국인의 노동 허용 ○ 외국인의 출입국, 체류 제도 완화	○ 공장 면적을 제한 면제, 국공유지 영구시설물건축물 허용, 외국 병원 약국 설립 허용, 외국 교육 기관 설립, 출입국 제도 완화, 기반시설지원, 출자총액 면제, 중소기업고유업종 참여 ○ 노사 환경 개선 월차 생리 휴가 배제, 파견근로자 채용 규제 완화,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면제
토지 사용	○ FIEZ의 위탁 경영자와 임대 계약 체결 ○ 토지의 매매 및 처분, 임대권의 전대 및 이양 금지	○ 매매 -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하여 조성 원가로 매각 ○ 임대 - 임대 기간: 50년 이내 - 투자 및 고용 규모에 따라 임대료 감면
투자 자원 조달	○ 제조업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경제부, 재무부, 및 우즈벡 개발 기금에서 조달	○ 총 개발 비용 14조 7610억 원 한국토지공사 3조 7000억 원 인천광역시 6조 7420억 원 국고 3조 1610억 원 민자 및 외자 유치 9910억 원 ○ 개별 개발은 사업자 부담 원칙

항목	나보이 자유 산업-경제 지역 (Free Industrial-economic zone, FIEZ)	인천 자유경제 지역 (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
행정 운영	○ 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사업기간 동안 FIEZ를 운영 관리 ○ 행정위원회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FIEZ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경영권 위임 ○ FIEZ 행정위원회의 예산은 FIEZ내 수익 사업과 일부 부동산 임대 수입을 통하여 확보 ○ 행정위원회는 FIEZ의 효과적인 활동과 인프라의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개발기금을 자체 예산 내에서 조성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접 관리
FIEZ 개발 계획 수립	○ 나보이 시는 국가토지위원회, 국가건설위원회, 대외경제협력부 및 기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 2주 이내에 FIEZ 지역 선정안을 내각에 제출 -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토지 사용권을 행정위원회로 이전 - 2009년 3월 1일한, 해당 지역의 Preliminary Development Plan (수도 전기 지원 시설 포함)을 내각에 제출 - 2010년 1월 1일한 General Layout 승인	
FIEZ 법률 제정 일정	○ 대외경제협력부는 1개월 이내에 경제부, 법무부 및 기타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본 법령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의 제/개정안을 내각에 제출 ○ 우즈벡 내각은 - 1개월 이내에 FIEZ 시행 법령을 제정 - 2009. 1.1일한 FIEZ를 행정위원회 설립 - 3개월 이내에 관련 법규의 제정 및 발효	

<Air Freighter Network>



<Surface Trucking Network>

